“진각국사 정신 본받자”

진각국사선양회, 화순서 다례제

한국 간화선을 중흥시킨 혜심 진각국사(1178~1234) 탄신 제839주년 행사가 화순에서 열렸다.

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는 4월 14일 화순군민회관에서 ‘제11회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를 열고 진각국사의 뜻을 기렸다.

화순은 진각국사가 탄생한 고장이다. 진각국사는 지눌의 뒤를 이어 수선사 제2세로서 조계종의 2대조가 되어 간화선을 크게 떨쳤다. 저서로 〈선문염송집〉 〈구자무불성화간병론〉 〈선문강요〉 〈금강경찬〉 등을 남겼다.

행사는 대현 스님, 정암 스님(선각종 총무원장), 상명 스님(前 선암사 주지) 등 500여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육법공양, 다례제, 개회선언과 축사, 법문, 평양GK하나예술단 경로위안 공연이 이어졌다.

대현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불교는 국난을 당하거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중생 곁에서 호국애민 정신을 구현했다”며 “진각국사는 무신정권 시대에도 백성의 안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도불교사암연합회 용왕제 · 방생대법회

완도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진)는 4월 16일 완도농공단지 앞 선착장에서 ‘용왕대제 및 방생대법회’를 갖고 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완도군의 발전을 기원했다.〈사진〉

정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용왕대제를 통해 완도군 어민들의 풍어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추진위원장 수향사 주지 벽해 스님은 “맑고 청정한 완도바다의 평안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축원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 스님을 비롯해 신우철 완도군수, 박종현 완도군의회 의장 등 신도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하게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중들은 ‘생명을 일깨워주는 치어 방생’과 해조류박람회 관람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오심, 등불 밝히며 봉축하네!”

부처님오신날 앞서 호남지역 봉축탑 점등식
“갈등 풀어나갈 지혜의 빛으로 세상 비추길”



광주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높이 20m의 화엄사4사자3층석탑등. 탑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서원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탑이 호남지역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4월 14일 5.18민주광장에서 한지로 만든 높이 20m 크기의 화엄사4사자3층석탑등을 점등하고, 올해 열리는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점등식에는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호산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성환 동구청장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점등을 축하했다.

이날 수석부회장 보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빛고을관등회는 광주전남 불자들이 다함께 만들어가는 전통문화축제”라며 “호남인이 갖고 있는 장구한 문화전통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화 스님은 봉축사에서 “세월호와 함께 진실이 인양되고, 올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는 봉축행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열린 5.18민주광장은 고려시대 광주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던 대황사 앞마당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은 “봉축탑을 점등한 이곳은 민주화의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준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고려시대 가람을 유지한 대황사의 앞마당이다. 대황사는 조선시대 관청으로, 일제강점기 총독부 건물로, 해방 후 전남도청과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변모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곳에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재 중 하나인 화엄사 4사자3층석탑등을 장엄하게 돼 뜻 깊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고창은 지역에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이 들어섰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4일 고창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대형 봉축탑을 세우고 점등법회를 개최했다. 점등식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스님들과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군의회의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경우 스님은 봉행사에서 “나라 안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세대 간 갈등은 커졌다. 또 세월호의 고통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북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자비롭고 지혜로운 언행으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스스로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무명서 벗어나 다함께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운사 한주 범여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지혜와 진리, 평화와 상생의 등불을 밝히는 오늘 점등이 전 세계가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에 처음으로 세워진 봉축탑은 높이 20m 규모로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올해 봉축표어를 담았다. 이 탑은 5월 3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불을 밝히며, 선운사는 고창지역 주요도로에 LED오색 연등을 달아 거리를 장엄했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는 17일 장성역 앞 광장서 장성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신도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법회를 갖고 제등행진을 진행했다.

장성군불교사암연합회장 마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 등불을 장성에 밝혀 화합과 평등의 마음이 군민들에게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토진 스님은 봉축사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듯 장성군민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7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연합법회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김광태 백양사 신도회장, 유두섭 장성군수, 김정한 장성군의회 의장 등이 참여했다.

광주지방경찰청 불자회(회장 국승인)도 19일 청사 내 1층에서 봉축점등식을 열고, 지역 경찰들에게 부처님오신날 봉축의 의미를 알렸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봉축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법요식에 이어 축하공연(증심사 합창단), 차담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광명 가득한 부처님오신날 기원

순창사암연합회 4월 15일 불기2561년 봉축법요 봉행



순창지역 봉축법요식에서 관불의식을 하고 있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전북 순창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청암, 장덕사 주지)가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4월 15일 순창 문화의집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은 고창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재무국장 수찬 스님, 교무국장 대일 스님, 포교국장 도오 스님 등 24교구본사 스님들과 대모암 주지 동산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구암사 주지 지공 스님, 대흥사 주지 일현 스님, 만일사 주지 자영 스님, 실상사 주지 병오 스님 등 순창사암연합회 스님, 황숙주 순창군수, 이동희 순창사암연합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국민의례, 삼귀의, 반야심경 독송에 이어 관불의식, 신도회 임원 임명장 수여, 봉축사, 축사, 법어,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모든 차별에서 벗어나 공정한 세상에서 살기 원한다”며 “불교가 시대의 아픔인 갈등과 대립을 화쟁정신으로 치유해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화합과 치유를 통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지극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청암 스님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불자들 마음마다 지혜의 등, 축복의 등, 나눔의 등을 밝혀 온 세상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기원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 앞서 순창사암연합회장 청암 스님은 이동희 순창불교신도회장, 손충호 남자회장, 서해숙 여자회장, 김상우 사무국장 등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옥련암, ‘산벚꽃 이쁜 날’ 문화축제

4월 15·16일, 사진전 · 어린이 그림그리기 · 공연 등



경내 마당 앞에 시민들이 둘러 앉아 문화공연을 즐기는 모습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풍성하고 화려한 도시의 왕벚꽃이 질 무렵이면 산중에는 산벚꽃이 수줍은 듯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도량 전체가 파스텔로 그려 놓은 듯 산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완주 옥련암에서 마을주민들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작은 산사축제가 열렸다.

완주 옥련암(주지 일감)은 4월 15일과 16일 문화축제 ‘산벚꽃 이쁜 날’을 개최했다. 옥련암이 자리 잡은 완주군 화산면 마을 이장들과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 관광객들이 함께한 소박한 작은 문화축제다.

도량 곳곳에서는 부처님께 차를 공양하는 헌다의식과 선차회, 이승호 작가의 ‘옥련암 사계’ 사진 전시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사찰음식전시회가 열렸다. 또 대금 연주가 이창선 씨의 사회로 ‘이창선과 대금스타일’을 비롯해 국악인 최재구, 송봉금, 가야금 연주가 김영언, 김아리가 출연, 정겨운 우리가락을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놀이 형태로 펼치며 잔치마당을 연출했다.

주지 일감 스님은 “산에 핀 벚꽃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아름다움을 선사하듯 모든 생명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기 위한 쉼이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산골 사찰의 특성상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축제에 참가한 한 시민은 “단순히 등산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풍요로운 산행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가 꾸준히 열리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둔산 자락에 자리 잡은 옥련암은 한동안 폐사지처럼 방치돼 오다가 일감 스님이 부임한 이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누구나 쉬어가고 싶은 사찰로 변모해 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 3,000일기도 입재의 의미와 그 중요성

▶ 현재 지하에 있는 모든 조상영가님들은 살아있는 우리 후손들이 이 기도를 해주기를 무척이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입재를 해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문과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도록 하십시오.

▶ 기도비는 저렴합니다. 3,000일 기도하면 거의 10년이 되는데 총액이 3백만원이면 됩니다. 본회에서 3,000일 기도를 해드리며 100일마다 기도비만 10만원씩 보내주시면 되는 법공양 영가 특별천도재로서 3,000일 기도를 하면 천도가 완벽하게 되며, 천도기도 효과가 최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